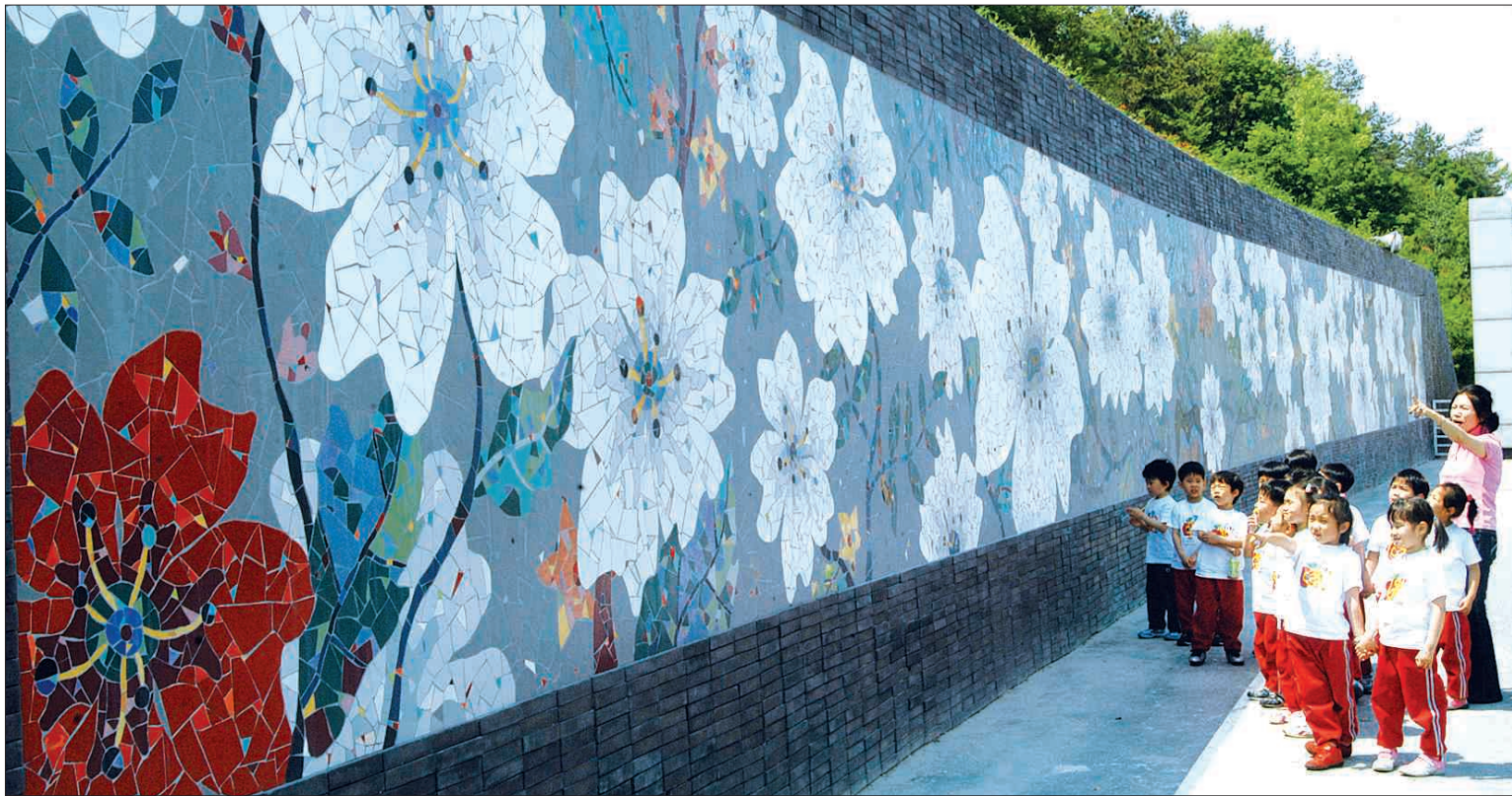


# '5월 광주' 짚레꽃으로 피다



광주민중항쟁 27주년을 앞두고 국립 5·18 민주묘지 정문 벽면에 조성된 길이 50m의 '짚레꽃' 벽화. 참배객들은 광주의 고통과 부활을 승화시킨 작품 앞에서 먼저 가신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암울했던 80년 5월이 짚레꽃으로 다시 피었다. 그 시절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다. 어디로 가야할지, 무엇을 해야할지-숨 죽이고 살았던 질곡의 세월은 컴컴한 한밤중이었다. 하지만 험한 가시넝쿨을 헤치고 해마다 5월이면 붉고 흰 꽃망울을 터트리는 짚레꽃처럼, '광주 정신'은 활짝 피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정문 벽면에 벽화로 되

짜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던 광주시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있다. '짚레꽃'은 가로 50m×세로 3.6m(180㎡) 크기로, 타일과 와편(瓦片)을 이용해 만든 작품이다. 광주 민중항쟁 27주년을 맞아 망월 묘역을 찾은 국내외 참배객들은 이 '짚레꽃' 벽화 앞에서 한(恨)을 '용서'와 '화해'로 승화시킨 '5월의 참맛'에 웃음을 머미고

## 5·18묘지에 50m×3.6m 벽화 그날의恨 용서·화해로 승화시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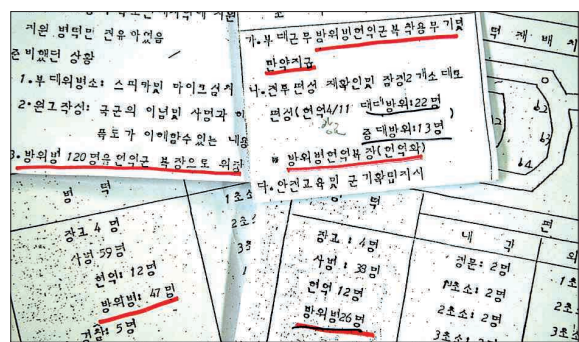
살아난 짚레꽃은 그 애련한 꽃말이 의미하듯, 죽은 자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담고 있다. 광주의 고통과 부활을 형상화한 '짚레꽃'은 강웅(서양화)·조영호(행위예술가)·문석주(설치작가)·배현철(한국화)·표인부(판화)씨 등 9명의 작가가 혼을 불어넣었다. 민주화를 위해 몸을 던진 넋들을 위로하고, 흐트러진 꿈을 곧추 세워 훗날 앞에 스크림을

이다. 공모전(상금 5천만원)에 당선돼 최근 벽화를 마무리한 '벽ART'팀 황지해 대표는 "아무도 알리지 않더라도 아름답게 피어난 짚레꽃처럼 5·18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짚레꽃이 그러하듯, 5월 영령들과 가족들이 상처를 딛고 일어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5·18대 방위병 120명 총기 지급 고향 시민군과 전투 내몰아

## 해남 주둔 92연대 작전일지 확인

광주민중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신군부 측이 지역 출신의 단기사병(방위)들에게 시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5월 단체가 최근 입수한 지역항토 사단인 31사단의 당시 '작전일지' '병력 재배치' 등에 따르면 단기사병들이 시민군과의 전투 등 군작전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에 주둔하던 31사단 92연대의 '1980년 5월21일 오전 작전일지'엔 '방위병 120명을 현역군 복장으로 위장' '부대근무 방위병 현역군복 착용 무기 및 탄약 지급' '전투 편성 재확인 및 2개소 편성' '안전교육 및 군기확립 지시'라고 적혀있다. (사진) 이들 단기사병들은 '폭도, 국도로부터 100미터 지점 민가에서 부대의 병력 규모 등 정탐활동'이라는 보고에 따라 부대와 해남지역 일대의 경비업무에 동원됐다. 편성은 당초 4명의 장교와 11명의 현역병이 투입됐으며, 대대 단기사병 22명, 중대 단기사병 13명으로 짜여졌다. 군 당국은 5월21일 오후 1시경 장교 2명과 40명의 현역병이 목포지역으로 지원을 나가 부대에 행정·지원 병력만 남게 되자, 현역 군복을 입고 총기를 지급한 단기사병을 120명으로 늘렸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우습게 등 해남지역에서는 23일 오전 광주로 가려던 7명의 시민군이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는 등 항쟁 기간 중 공산적으로 2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군의 단기사병 '현역화'는 23일 오전 9시50분 광주~목포간 '공목'간 도로 봉쇄 차단 작전'에서도 확인됐다. 7개의 초소가 도로를 차단하고 3개의 경비초소와 대공초소 등이 세워진 이곳에서도 47명의 단기사병이 투입됐다. 5월 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말로만 떠돌았던 단기사병의 전투 투입이 군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며 "신군부 측은 해남이 주소인 단기사병들을 동원, 고향 지역민들과 전투를 강요할 정도로 악랄했다"고 설명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중국산 전자총격기 840점 국내 밀반입 범죄 악용 우려

불법으로 밀수입된 전자총격기는 어디에 사용될까? 여수해경은 10일중국에서 컨테이너선을 통해 수백여점의 전자총격기를 밀반입한 안모(42·부산시)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공산품 수입·유통업자인 안씨는 지난 2003년 11월 중국에서 장난감·손전등 등을 수입하면서 전자총격기 840여 점(7천500만원 상당)을 몰래 숨겨 부산항으로 들여온 혐의다. 국내로 밀반입한 전자총격기를 적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시중 유통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전자총격기의 전류 세기는 6만V 이하"라며 "범죄에 사용될 경우 흉기로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날치기·택시기사 살인·부녀자 납치 광주 치안 여전히 불안

노래방 강도 사건 해결 이후에도 광주 치안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날치기, 살인 및 절도 사건들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10일 새벽 또다시 부녀자를 상대로 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새벽 3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H 아파트 앞 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현금 10만 원과 휴대전화·화장품 등이 든 김모(여·29)씨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올 들어 광주시내에서 발생한 날치기는 40여 건으로, 경찰은 용의자 4~5명만 검거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난달 17일 광주 사당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 역시 월산 치안센터에 수사본부까지 차렸지만, 지금껏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흉기와 족적을 확보했지만, 용의자는 '오리무중'이다.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용의자 수배 전단지 1만 여장을 배포했지만, 시민 제보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3월27일과 4월15일께 남

구와 서구에서 두 차례 발생한 부녀자 납치 사건 또한 한 달이 지났지만, 용의자를 붙잡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보다 급증하기 시작한 절도 사건의 경우 3천여 건을 훌쩍 넘었지만, 수사 인력 부족으로 대부분 미제로 남았다. 경찰은 시민들의 비난이 고조되자 5월부터 '절도 특별수사팀'(TSI-Thief Special Investigation)을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법 취약지 등에 경찰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여물기자 wool@kwangju.co.kr

**명품신도시의 중점특권을 누리는 3,813 평대단지!**  
| 품영정전·호수공원 정장의 최고 입지 |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9000

## 나원침 (7206) 김장동



**더 좋은 건축·산업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분사:(062)514-3002 ▶공방:(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광주점:(062)525-9002 ▶전주점:(063)271-5051

광주서도 이들 친구들 '보복 폭행'...  
○재벌그룹 총수의 '보복 폭행' 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이들 친구들을 '보복 폭행'한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영업용 택시운전자 이모(46·광주시 북구)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40분께 북구 동림동 D초등학교 옆 공원에서 아들(14·중 3년) 친구인 정모(15·중 3년)군 등 2명을 불러내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정군 등이 자신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돈까지 뺏아오라"고 시킨 것에 격분,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들이 다시는 이 같은 짓을 못하도록 훈계하기 위해 몇 대 때렸을 뿐"이라고 해명.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세계스타·세계보청기**  
세계적 권위인증 품질 보증! FDA, ISO 9001, CE 0120, KGMP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계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계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 또 한번 앞서갑니다.  
www.segistar.co.kr  
대리점 사업본부 02)538-9388  
무료상담 가능하오니 부담없이 방문해 주십시오.  
상담전화 1588-8499 | 080-222-0100